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

Clothing and Hairstyle Behavior Dependence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Women

조선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 주 비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정 옥 임

Dep.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Ju Bee, Bar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Professor : Ok Im, Ju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female college students' physical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and hairstyle behavior.

The study methodology was a survey, with questions gather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surveys and collated by the author. The study subjects 350 female college students in Gwangju, Korea.

This survey was performed from November 8th to 13th 2004, and 348 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for the study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research variants, costume behavior was derived from four factors clothing sympathy, clothing exhibition, clothing convenience, clothing aesthetics. Hairstyle behavior was derived from five factors: hair sympathy, hair individuality, hair aesthetics, dependency on hair designer, and

hair convenience.

2. The difference between clothing and hairstyle behavior according to physic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clothing and hairstyle behavior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height, weight, study major, spending money, and family income.

3.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clothing and hairstyle behavior clothing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the same differences in clothing behavior as in hairstyle behavior according to their own physical characteristics. When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 they tended to pursue a clothing aesthetic. When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 they tended to pursue a comfortable and acceptable look, which does not attract others' attention, rather than pursue the changes of hairstyle and fashion.

주제어(Key Words): 신체적 특징(Physical Characteristics), 의복 행동(Clothing Behavior), 헤어스타일 행동(Hairstyle Behavior)

1. 서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종족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신체에 상흔을 내거나 장신구를 달아 부와 힘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써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미의 기준이 복스럽고 후덕한 이미지의 얼굴이 둥글고 통통한 여성들이 인기가 있었으며, 60년대에는 살찐 여성이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미스코리아, 슈퍼엘리트 모델, 그리고 여성 탤런트들이 미적인 기준이 되면서 마르고 서구적인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의 다이어트 관련 정보나 각종 다이어트 제품들의 영향도 변화의 인식에 적극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의 영향은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등을 유도하며, 그러한 이상적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심각한 자기학대에까지 이르게 됨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열등감을 느끼면 부정적인 자아개념, 다시말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지고(이재구, 서경현, 이청무, 2002)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Thopmsom, 2000; Tiggemann, 2001). 이러한 일들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이상적인 신체이

미지를 위하여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에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예쁘고 날씬한 모델과 마네킹만을 선호하여 디자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개성과 신체적인 특징 등에 따른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의복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단순히 외적인 표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비언어적 상징(류숙희, 2001)으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로 이용된다. 즉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각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복의 역할은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 강조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복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신체 중 가장 가시적인 곳이며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용이하므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김희숙, 1995).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용이하며, 얼굴형과 전체적인 신체적 이미지에 착시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주는 개인의 이미지는 의복에 의한 이미지 변화 못지않게 변화와 차이가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Cash(1985) 등에 의하면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서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성표현의 수단이 되고,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복과 헤어스타일이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수단과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패션을 리드하는 젊은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그 외의 젊은층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 질 수 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여대생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 가치관, 자아개념, 성격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헤어스타일이나 의복, 장신구 등을 이용하며,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및 개성성·사회성·유형성 등을 추구하여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고,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의복행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을 함께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의복 및 헤어 디자이너들이 여대생들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위한 의복과 헤어스타일 개발 및 마케팅을 할 때에 여대생들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과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 등 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신체적 특징과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 상호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표준체위조사 92년과 97년을 비교하면 서구화된 이목구비와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1950~60년대의 출생자까지는 체격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얼굴이 커지는 변화를 보였으나 1970년대 이후 출생자부터는 신장을 비롯한 체격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턱이 급격히 작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조용진, 1999)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오늘날 경제성장과 정보화시대의 전환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여성들이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 단계를 거쳐 성인초기의 안정적인 변화의 단계로서 성적 성숙을 이루게 되며, 신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지고,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관리를 지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신체 구간부를 중심으로 피하지방이 침착하기 쉬워 체표면이 완만한 커브를 이루게 된다. 피하지방의 침착은 연령과 함께 증가되는데 사춘기 이후의 여성은 체간, 하지, 상지 순으로 신체중심부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유방이 크게 돌출하고, 골반이 발달하여 횡경이 넓어지고 골반경사도가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권숙희, 1995) 하반신 특징은 과거에 비해 신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하반신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다리부분은 가늘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최지은, 1997).

따라서 사회발달과정에서 신체의 외모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현대 문화에서 많은 여성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미의 기준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몸무게와 실제몸무게 사이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신을 왜곡하게 된다. 오늘날 여대생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부위는 전체적인 몸매, 눈, 전체적인 얼굴생김새, 피부, 체격의 순으로 체형과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부위 중 허벅지, 배, 엉덩이, 몸무게, 다리모양, 종아리의 순으로, 주로 하체부위와 체형에 불만족하고 있었다(김용주, 1999).

Secord와 Jourad(1953)는 성인 초기부터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변화와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신체만족도는 정신건강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은 자신의 신체이

미지와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적 특징과 의복행동

행동과학자(behaviorists)들은 신체외모를 신체적 매력, 몸무게, 키, 얼굴의 특성, 몸치장 요소 등과 같은 변수들로 세분하기도 하였다(이인차 외 2인, 2001). 신체외모는 타인에 관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사람의 성별, 인종,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이다. 최근 현대인은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김효숙, 최창석, 이은실, 2003).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서 신체불만족을 갖게 하는 요인은 그 시대의 이상형과 표준형을 반영하는 스타일의 의복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의복자체로 보기보다 자신의 신체문제라고 돌린다고 한다(Labat & Delong, 1990).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왜곡하게 되어 실제 자신의 신체사이즈와 이상적인 신체사이즈의 차이가 너무 크게 되므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무리한 다이어트나 지나친 성형수술 등을 초래하게 된다.

Mclean(1978)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이 표준체형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그러한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박우미(1993) 등의 연구에서는 20~89세 여성의 신체만족도 측정결과 20~30세의 여성이 신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0대의 여성이 30대 이상의 주부에 비해 가늘고 긴 체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김용주(1999)의 연구에 의하면 객관적 비만수준, 주관적 비만수준,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만족도는 의복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여대생들은 단순히 신체가 날씬해 보이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볼륨감 또한 중요하

게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적 특징,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 등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관습,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복을 통해서 착용자의 신분, 직업, 관심, 태도, 가치관 및 성격을 파악해볼 수 있다(간문자, 1981). 또한 의복행동은 의복관심도, 의복의 동조성,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성,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심미성, 의복의 정숙성을 의미한다(이은미, 1984; 심경진, 1996).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이 몸에 맞는 정도는 상관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이는 외모에 자신이 있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에 덜 만족할수록 체형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는데 이는 외형으로 인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정숙, 1984).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로, 키가 클수록 친구나 연예인 등에 동조하는 의복동조성과 고급브랜드를 추구하는 의복과시성, 패션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의복심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몸무게가 표준이상일수록 바지만을 고집하거나 고정된 의복스타일을 입는 등 의복편의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영윤과 강혜원(1982)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유행에 대한 관심, 유행스타일 선호 등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이들 사이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디자인과 유행, 의류 및 악세서리 구매, 의류계획이나 정리에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라, 1991).

의상의 흥미도 조사연구에서도 신체적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대담한 스타일이나 색상을 통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자 하며 신체에 불만족하는 여성은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는 스타일과 색상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체적 자기에서

느끼는 외모의 매력성은 신체적 조건보다는 의복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인자, 1984).

하주연(2002)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이미지 및 각각 추구성향,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유행/의복관심 요인에는 외모관심, 체중관심이 영향을 미쳤으며, 의복과시성 요인에는 감각추구성향, 외모관심이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체중이나 외모 등의 신체적 요인들이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와 신체만족·불만족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며, 의복의 선택, 흥미, 유행에 대한 관심 등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대생들은 신체적 외모의 결함을 보완하여 자신의 이상형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된다.

3. 신체적 특징과 헤어스타일 행동

두발은 신체의 머리 부분에 대한 보호 기능과 인간의 미적 추구를 위한 장식적 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후자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기성복이 일반화되면서, 의복보다는 변화가 쉬우며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김희숙, 1993).

고대 이집트에서는 흰머리를 커버하기 위해 검은 암소의 피와 거북의 등껍질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금발의 매력이 대단히 유행이 되었다. 이는 아마도 올림피아 신전의 여신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이미션, 1998: 9-10).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위한 노력은 현대에 와서는 백발을 커버하거나 자연스럽게 정돈, 유지시키고, 오랜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기분전환, 직업에 따른 전문적인 이미지 창출 및 새로운 것의 시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성격이나 패션경향이 잘 표현되고 창조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의 모발 색상

에 변화를 주고 예술성을 가미하여 헤어스타일을 보다 완성도 높게 보이도록 만들거나 색상의 착시 효과를 줌으로써 얼굴형을 작게 또는 향상되어 보이도록 하였다(윤지성, 2000).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여대생의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선호이미지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내추럴한 층이 있는 긴 머리를 선호하며, 칼라도 부드럽고 로맨틱한 느낌이 드는 레드 계열에서 핑크계열이 선호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지성추구형의 패션감성과 정숙하고 유행성이 있으며,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로 동조성 등의 헤어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김정순, 2002).

박옥련, 정희진(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산업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활양식이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되면서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은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성 추구하고 자기표현으로서 사용되던 의복과 헤어스타일 등은 대중매체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연예인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로 변하게 됨으로써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행을 보면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는 스타일, 바깥으로 뺀치는 웨이브 스타일, 흑인 풍의 레게 스타일과 화려한 염색 등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헤어 컬러링은 연예인과 패션모델을 중심으로 염색 붐이 일어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급격히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김명희, 2000).

이와 같은 현상들은 단순히 자신의 신체적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예인들을 모방 하는 것에만 열중하여 자칫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마치 자기 개성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 헤어스타일은 의복과는 달리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적인 특징들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체적인 특징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권장하고, 신체적인 결점 등을 가리거나 보완하는 등의 착시효과를 높임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며, 행동유형

에 따른 각각의 마케팅의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3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350부를 배부하여 총 348부가 회수되어 자료처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경향 N=348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공계열	자연계열	111	31.9
	인문사회계열	181	52.0
	예체능계열	56	16.1
	계	348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모형의 주된 구성개념은 신체적 특징, 의복행동, 헤어스타일 행동이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과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체적 특징 측정도구

신체적 특징은 여대생의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치수를 기입하는 문항과 체형, 얼굴형, 두상형태 등의 특징에 대하여 주관적인 인지상태를 묻는 자가 진단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순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의복행동 측정도구

의복행동은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편의성, 의복심미성, 의복개성성의 측면을 포함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주연(2001), 김정숙(200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김정순(2002)의 헤어스타일 행동

에 관하여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의복동조성은 .83이었고, 의복과시성은 .87, 의복편의성은 .72, 의복심미성은 .70로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헤어스타일 행동 측정도구

헤어스타일 행동은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의 측면을 포함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정순(2002), 양숙희(200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신뢰도는 헤어동조성이 .86, 헤어개성성이 .81, 헤어심미성이 .76, 헤어의존성이 .77, 헤어편의성이 .50으로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응답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으며, 의복행동, 헤어스타일 행동의 하위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고, 신체적 특징과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Duncan에 의한 사후검정을 하였으며, 한달 용돈에 대한 차이 분석에는 T-test를 하였다. 또한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1) 신체적 특징의 일반적인 경향

다음은 여대생의 키, 몸무게, 얼굴형, 두상형태 등의 신체적 특징의 빈도와 퍼센트를 살펴보았다(표 2).

<표 2> 신체만족도에 따른 신체적 특장의 일반적인 경향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키	160cm 미만	82	23.6
	160cm - 165cm	198	56.9
	165cm 초과	68	19.5
	합 계	348	100
몸무게	50kg 미만	125	35.9
	50kg - 55kg 미만	133	38.2
	55kg 이상	90	25.9
	합 계	348	100
얼굴형	달 갇 형	131	37.6
	등 근 형	148	42.5
	각 진 형	69	19.8
	합 계	348	100
체형	키에 비해 뚱뚱한 형	86	24.7
	보 통 형	216	62.1
	키에 비해 마른 형	46	13.2
	합 계	348	100
두상 형태	앞뒤 꼭지가 볼록한 형	87	25.0
	뒤 꼭지가 볼록한 형	86	24.7
	뒤꼭지가 납작한 형	142	40.8
	양옆이 볼록한 형	33	9.5
	합 계	348	100

* 키와 몸무게는 분석을 위하여 (평균±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그 결과, 키는 160cm~165cm가 198(56.9%)로 가장 많았고, 몸무게는 50kg~55kg미만이 133(38.2%)으로 가장 많았다. 얼굴형은 등근형이 148(42.5%)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자기체형에 대해서는 보통형이라고 생각한다고 216(62.1%)으로 가장 많았다. 두상형태는 뒤 꼭지가 납작한 형이 142(40.8%)로 가장 많았다.

키와 몸무게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단의 Size Korea가 내놓은 2003년도 표준 신장= 159.7cm, 표준 체중= 55kg의 신체 치수와 비슷한 범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의복행동의 요인구조

의복행동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8문항을 주성분 분석을(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하였고,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행한 결과 고유값이

1이하인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표 3>과 같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67.35%이었다.

요인 1은 옷을 입을 때 연예인의 옷이나 친구와 비슷한 옷을 입는 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의복동조성'이라 명명하였다. 총 4문항으로 설명력은 32.1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의복과시성'이라 명명하였으며, 메이커 있는 옷이나 고급브랜드의 옷을 선호하는 행동 등 3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명력은 14.49%이었다.

요인 3은 '의복편의성'이라 명명하였으며, 고정된 의복스타일을 선호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의복스타일을 선호하는 행동 등의 3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명력은 9.84%이었다.

요인 4는 '의복심미성' 요인으로 상황에 맞추어 옷을 연출하며, 패션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의복행동으로 3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명력은 7.32%으로 나타났다.

3) 헤어스타일 행동의 요인구조

헤어스타일의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네 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헤어스타일의 총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67.35%이었고, 도출된 각 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요인 1은 잠지나 TV에서 유행하는 헤어나 친구 또는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는 행동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어 동조성이라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35.57%이었다.

요인 2는 헤어 개성성 요인으로 강렬한 헤어컬러나 대담한 헤어스타일 등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며, 역으로 해석된 문항을 포함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력은 9.47%이었다.

요인 3은 헤어 심미성이라 명명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의 조화와 헤어디자인, 색상 등을 중요시하는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3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력은 8.34%이었다.

요인 4는 헤어 의존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유명 헤어

〈표 3〉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N=348

요인 및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편의성	의복심미성
의복 동조성	연예인의 옷	.828	.163	-.228	.069
	내취향아닌 유행 옷	.812	.185	-.117	-.075
	잡지나 TV의 유행하는 옷	.788	.169	-.166	.152
	친구와 비슷한 옷	.680	.133	.150	.084
의복 과시성	메이커 있는 옷	.151	.866	-.038	.090
	고급브랜드의 옷	.221	.852	-.142	.034
	같은 메이커의 옷	.153	.843	-.030	.089
의복 편의성	고정된 의복스타일	-.074	-.116	.773	-.197
	바지고집	-.061	-.084	.767	-.157
	무난한 의복스타일	-.201	-.107	.677	-.231
의복 심미성	상황에 맞는 옷 연출	.011	.104	-.307	.808
	옷에 맞는 패션 조화	.123	.077	-.306	.802
	옷 디자인, 색상 먼저 봄	.162	.406	.030	.538
고 유 값		5.46	2.46	1.67	1.25
누적분산율		32.12	46.60	56.44	63.76

〈표 4〉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N=348

요인 및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
헤어 동조성	잡지, TV의 유행 헤어	.788	.196	.233	.136
	내 취향 아닌 유행헤어	.783	.210	.114	.304
	연예인의 헤어	.748	.233	.247	.195
	친구와 비슷한 헤어	.729	.091	.029	-.062
헤어 개성성	무난한 헤어스타일	.049	.773	.116	.075
	독특한 헤어	.431	.733	.175	.142
	강렬한 컬러나 대담한 헤어	.492	.701	.110	.097
	고정된 헤어스타일	.075	.679	.147	.044
	남이 똑같은 헤어하면 바꿈	.205	.488	.316	.145
헤어 심미성	의복에 맞는 헤어조화	.117	.102	.860	.108
	상황에 따른 헤어	.201	.212	.808	.078
	헤어 디자인, 색상 중요	.231	.155	.567	.345
헤어 의존성	유명 헤어 디자이너에게 머리함	.334	.129	.200	.804
	고급스러운 미용실 감	.316	.081	.242	.801
	한 미용실만 감	-.115	.069	2.727E-02	.746
고 유 값		6.40	1.70	1.50	1.43
누적분산율		35.57	45.04	53.38	61.35

어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하며, 한 미용실만을 고집하는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력은 7.97%이었다.

2. 관련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

이 절에서는 신체적 특징과 인구 통계적 변인에

다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던컨 테스트를 하였다.

1)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

본 연구에서의 신체적 특징은 키, 몸무게, 체형, 얼굴형, 두상형태를 가리키며, 이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표 5>와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표 6>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행동<표 5>에서는 키가 클수록 친구나 연애인 등에 동조하는 의복동조성과 고급브랜드를 추구하는 의복과시성, 패션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의복심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키가 작을수록 의복편의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체적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대담한 스타일이나 색상을 통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자 한다(이인자, 1984)는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여대생의 몸무게에 따른 의복행동<표 5>을 살펴본 결과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의복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바지만을 고집하거나 고정된 의복스타일을 입는 등의 의복편의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여대생의 체형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표 5>를 살펴본 결과 자신이 키에 비해 뚱뚱한 형이라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의복편의성이 높게 나타나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기가 키에 비해 뚱뚱한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은 고정된 의복스타일과 무난한 의복스타일을 선호하며, 바지만을 고집하여 입는 등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하고, 주로 활동하기에 편한 옷을 입는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몸무게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체형이 비만해질수록 의복 만족도가 낮고, 체형이 드러나지 않는 의복형태를 많이 착용한다는 이희남(1985)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편의성		의복심미성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키	160cm 미만	2.24	A	2.64	A	3.35	B	3.03	A	4.85**
	160cm-165cm	2.39	A	2.82	A	3.35	B	3.20	AB	
	165cm 초과	2.60	B	3.09	B	3.06	A	3.39	B	
몸무게	50kg 미만	2.41		2.86		3.15	A	3.21		1.46
	50kg-55kg 미만	2.43	.63	2.86	.56	3.28	A	3.26		
	55kg 이상	2.33		2.75		3.51	B	3.09		
체형	키에 비해 뚱뚱한 형	2.35		2.78		3.48	B	3.07		1.87
	보통 형	2.41	.23	2.85	.18	3.23	A	3.23		
	키에 비해 마른 형	2.41		2.83		3.21	A	3.28		
얼굴형	달걀형	2.53	B	2.87		3.19		3.27		1.35
	둥근형	2.32	A	2.80	.25	3.40		3.17		
	각진형	2.31	A	2.82		3.24		3.12		
두상형태	앞뒤 꼭지가 볼록한 형	2.53		2.93	AB	3.16		3.25		.97
	뒤꼭지가 볼록한 형	2.34	1.46	2.90	AB	3.28		3.22		
	뒤꼭지가 납작한 형	2.35		2.66	A	3.33		3.12		
	양옆이 볼록한 형	2.41		3.08	B	3.52	1.87	3.31		

A, B는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임.

p<.05*, p<.01**

〈표 6〉 신체적 특징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키	160cm 미만	2.18		2.19		2.52 A		2.31 A	
	160cm-165cm	2.29	1.35	2.25	1.02	2.81 B	8.48***	2.63 B	6.13**
	165cm 초과	2.38		2.34		3.00 B		2.77 B	
몸무게	50kg 미만	2.30		2.32		2.78		2.60	
	50kg-55kg 미만	2.29	.26	2.19	1.20	2.77	.03	2.58	.07
	55kg 이상	2.23		2.26		2.79		2.55	
체형	키에 비해 뚱뚱한 형	2.24		2.27		2.72		2.57	
	보통형	2.29	.14	2.23	.65	2.77	1.05	2.53	1.98
	키에 비해 마른 형	2.28		2.35		2.92		2.81	
얼굴형	달걀형	2.34		2.28		2.90 B		2.64	
	등근형	2.27	.96	2.21	.49	2.68 A	2.97*	2.59	1.34
	각진형	2.18		2.29		2.77 AB		2.43	
두상형태	앞뒤 꼭지가 볼록한 형	2.37		2.33		2.98 B		2.88 B	
	뒤꼭지가 볼록한 형	2.19		2.23		2.80 AB		2.46 A	
	뒤꼭지가 납작한 형	2.27	.82	2.25	.62	2.68 A	3.32*	2.42 A	6.79***
	양옆이 볼록한 형	2.33		2.16		2.64 A		2.80 B	

A, B는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임.

p<.05*, p<.01**, p<.001***

얼굴형에 따른 의복행동(표 5)을 살펴본 결과, 얼굴형이 달걀형에 가까울수록 유행하는 옷이나, 연예인, 친구 등의 의복스타일을 모방하여 입는 등의 의복동조성이 강하게 나타나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헤어스타일 행동(표 6)에서는 달걀형이 헤어심미성이 높게 나타나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상형태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표 5)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의복과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뒤 꼭지가 납작하거나 양옆이 볼록한 형의 두상형태인 여대생들은 고급브랜드의 옷을 선호하거나 메이커 있는 옷을 입는 등의 의복과시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의복이 돋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두상형태로 인한 신체적인 결점을 감추고 전체적인 신체이미지를 향상되어 보이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 행동(표 6)에서는 키가 클수록 의복에 맞는 헤어스타일과 상황에 따른 헤어스타일, 헤

어디자인과 색상을 중요시하는 헤어심미성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고급스러운 미용실, 고정된 미용실을 선호하는 헤어의존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상형태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표 6)에서는 두상의 앞뒤 꼭지가 볼록한 형이 헤어심미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헤어 디자이너나 고급 미용실을 선호하며, 한 미용실만을 고집하는 등의 헤어의존성은 두상의 앞뒤 꼭지가 볼록한 형과 양옆이 볼록한 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결점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미용실을 선호하게 되며, 다른 미용실에 가서 마음에 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적 특징들에 따른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신체적인 특징들을 고려한 마케팅을 시도하여 고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적 변인은 전공계열, 월평균 가계소득, 한달 용돈 등이 측정되었고, 이에 따른 의복행동<표 7> 및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표 8>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 통계적 변인에서 전공계열에 따른 의복행동<표 7>을 살펴본 결과, 예체능계열은 의복동조성, 의복심미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복편의성은 인문사회계열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의복행동<표 7>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이 높은 데 반해,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의복 편의성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한달 용돈에 따른 의복행동<표 7>을 살펴본 결과, 여대생의 한달 용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복편의성이 높은 반면에, 한달 용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복심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표 8>에서는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이 예체능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타 계열보다 예체능 계열의 여대생들이 헤어스타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며, 의복과 헤어스타일 모두 동조성과 심미성이 타 계열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표 7>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편의성		의복심미성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전공 계열	자 연	2.49 B		2.76		3.38 B		3.14 A	
	인문사회	2.25 A	9.51***	2.80	2.41	3.42 B	21.59***	3.11 A	11.37***
	예 체 능	2.69 B		3.05		2.70 A		3.60 B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23 A		2.51 A		3.47 B		2.98 A	
	200만원 이상	2.46 B	3.90*	2.85 B	13.08***	3.27 AB	4.03*	3.25 B	7.30**
	3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47 B		3.06 B		3.17 A		3.32 B	
한달 용돈	20만원 미만	2.23		2.57		3.45		2.94	
	20만원 이상	2.57	4.49	3.11	6.37	3.12	-4.02*	3.47	7.44*

A, B는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임.
p<.05*, p<.01**, p<.001***

<표 8>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평균/D	F값
전공 계열	자 연	2.29 A		2.35 A		2.75 A		2.54 A	
	인문사회	2.14 A	13.57***	3.09 B	16.21***	2.62 A	25.10***	2.48 A	7.46***
	예 체 능	2.73 B		3.61 C		3.38 B		2.98 B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24		2.17		2.65		2.28 A	
	200만원 이상	2.36	1.20	2.27	1.23	2.81	2.34	2.68 B	8.54***
	3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3		2.30		2.86		2.71 B	
한달 용돈	20만원 미만	2.15		2.14		2.56		2.34	
	20만원 이상	2.42	3.30**	2.38	3.45**	3.02	5.93	2.83	5.49

A, B,C는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임.
p<.05*, p<.01**, p<.001***

이는 미적인 것에 관심이 높을수록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행동에 있어서도 심미적인 면을 상당히 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친구들이나 연예인의 스타일을 쉽게 따라하는 동조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전공계열이 직접적으로 직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여대생에게는 자신의 전공계열이 의복과 헤어스타일을 선택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통계적 변인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표 8)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헤어의존성에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대생의 한달 용돈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표 8)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달 용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헤어동조성과 헤어개성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연예인이나 친구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는 헤어동조성, 남의 눈에 띄는 독특한 색상이나 헤어스타일을 하는 등의 헤어개성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준순(2002)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자신의 이름다움에 대한 미적 측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용돈에 따라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 심미성과 유행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3.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 상호간의 관계

여대생들의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 상호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인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 헤어스타일 하위요인인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은 $p<.01$ 의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의복과 액세서리 등 패션의 조화를 중시하며,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는 등 의복에 대해 관심이 높은 여대생은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눈에 띄고,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를 선호하는 등 유행에 뒤지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급 미용실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의복편의성은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과 $p<.01$ 의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복편의성과 헤어편의성과의 관계는 $p<.01$ 의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헤어편의성은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과 $p<.01$ 의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의복편의성을 추구하는 여대생은 헤어스타일도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나 눈에 띄는 독특한 헤어스타일 등의 변화를 싫어하며, 고정된 헤어스타일과 눈에 띄지 않고, 편하게 묶는 머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성을 추구하는 여대생들에게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묶거나 땀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안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편, 헤어의존성은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복편의성과

<표 9>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 상호간의 관계

N=348

의복행동	헤어스타일 행동	헤어스타일 행동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	헤어편의성
의복행동	의복동조성	.62**	.41**	.34**	.35**	-.32**
	의복과시성	.30**	.15**	.29**	.45**	-.16**
	의복편의성	-.27**	-.40**	-.42**	-.20**	.18**
	의복심미성	.30**	.30**	.60**	.33**	-.18**

$p<.05^*$, $p<.01^{**}$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하주연(2002)의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태도의 하위변인인 심리적 의복의존성과 헤어스타일 태도의 하위요인인 헤어디자이너 의존성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높을수록 헤어디자이너 의존성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이 여고생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여고생들은 의복보다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자유롭게 의복과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여대생의 경우에는 의복동조성이나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이 높을수록 헤어의존성도 높게 나타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기 혼자서 스타일을 만들기 보다는 유명한 헤어디자이너에게 의존하여 고급스러운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요즘 '몸짱', '얼짱'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신체이미지를 선호하여, 이를 통해 자신감을 표출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등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의복과 헤어스타일 등을 통하여 신체이미지를 고양시킴으로써 사회로 진출하기 바로 전 단계의 여대생들에게 자존증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패션제나 미용계에서도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을 제시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과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 등 제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신체적 특징과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시내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용과 문항 수를 수정한 후 본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2주에 걸쳐서 여대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50부 중 결과가 미비한 2부를 제외한 총 348부가 자료처리에 사용되었으며 SPSS 10.0 통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여대생의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점수경향을 알아본 결과 의복행동은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편의성, 의복심미성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의복편의성은 평균점수가 높은 반면에, 의복동조성은 낮게 나타났다.

헤어스타일 행동은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에서는 키가 클수록, 친구나 연예인 등에 동조하는 의복동조성과 고급브랜드를 추구하는 의복과시성, 패션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의복심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헤어스타일 행동에서는 키가 클수록, 의복에 맞는 헤어스타일과 상황에 따른 헤어스타일로 헤어의존성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 중에서 키가 의복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도 헤어심미성과 헤어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몸무게가 표준이상 일수록, 고정된 의복스타일과 무난한 의복스타일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며, 활동하기에 편한 옷을 주로 입는 등의 의복편의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백화점의 숙련복 매장에서 55나 66 사이즈 이상의 의복들을 갖추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달걀형'의 여대생이 헤어심미성이 강

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상형태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의 차이에서는 앞뒤 쪽지가 볼록한 형과 뒤 쪽지가 볼록한 형은 헤어심미성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서는 의복동조성, 의복심미성이 예체능계열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의복편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 행동은 예체능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이 높으며, 헤어 디자이너, 고급미용실 등을 선호하는 등의 헤어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의복행동, 헤어스타일 행동 상호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인 의복동조성,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 의복개성성과 헤어스타일 행동의 하위요인인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의존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여대생의 경우에는 의복동조성이나 의복과시성, 의복심미성이 높을수록 헤어의존성도 높게 나타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기 혼자서 스타일을 만들기 보다는 유명한 헤어디자이너에게 의존하여 고급스러운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복 편의성은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의복편의성과 헤어편의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의복편의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헤어스타일도 유행이나 다양한 헤어스타일로의 변화를 싫어하며, 고정된 헤어스타일과 눈에 띄지 않고, 편하게 묶는 머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에서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신체에 만족할수록 심미성을 추구하며, 불만족할수록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유행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무난함을 추구한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임의표집 방법에 의해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의 여대생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이 적용되지 못하였으므로 표집대상을 달리하여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행동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였으나, 신체치수에 따른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기진단으로 응답되었으므로 후속 연구 시에는 정확하고도 적절한 측정도구가 개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간문자(1981). 여성의 직업과 의상흥미 영역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혜(1995). 혜택 세분화에 따른 남성정장 기성복의 브랜드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숙희(1995). 여대생의 의복 설계를 위한 체형분류 및 인대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2000). 헤어스타일 모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V 드라마 텔런트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숙(1999).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주(1999).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의복만족도 및 신체노출 의복행동의 관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2). 여성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의복행동과 메이크업 상관성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순(2002). 여대생의 헤어스타일행동에 대한 선호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 최창석, 이은실(2003). 의복스타일과 색이 신

- 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 김희라(1991). 신체 만족도와 의상 흥미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1993). 20세기 서구여성 hair style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도주연(1990).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숙희(2001). 자기 이미지가 의복 스타일 이미지 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9(5), 734-746.
- 박옥련, 정회진(1998). TV Show Program에 나타난 연예인의 의복 연출이 대학생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학위논문.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 심경진(1996). 중학생의 성격형 정체감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희(2002).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행태와 관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성(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미선(1998). 염색 및 탈색 이론과 실기. 현문사, 9-10.
- 이영윤, 강혜원(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 이은미(1984).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1984). 의상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 건대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3, 36-50.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2001). 의상심리. 교문사, 209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2001). 의상심리. 교문사, 203-208.
- 이재구, 서경현, 이청무(2002). 청소년들의 체형 및 체형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논문집, 34, 243-252.
- 이주연(1995).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희남(1985). 여대생의 신체만족도 및 신체충실지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상지대 논문집, 6.
- 정경숙, 서강현(2003).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헤어만족과 미용관심의 역할: 미용실 이용객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9(3).
- 조용진(2003). 얼굴, 한국인의 낮. 세계절, 154.
- 하주연(2001).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선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Cash, T. F., Winstead, B. A., & Jadna, L. H. (1986). Body image survey report;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 Cash,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in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Books, MA ; Lexington, 343-355.
- Desmond, Sharon, J., Halliman, C., & Smith, D. (1989). Black and Whi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Weight. *Journal of School Health*, 59.
- Kalish, R.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Monterey, CA: Books cole publishing co.
- Labat, K. L., &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43-48.
-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olothing Satisfaction. Utah State University.

Secord, P. F., & Joura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Thompson, A. M., & Chad, K. E. (2000). The relationship of pubertal status to body image, social physique anxiety, preoccupation with weight and nutritional status in young

femal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 207-211.

Tiggemann, M. (2001). Person x Situation interactions in body dis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9*, 65-70.

(2004년 9월 24일 접수, 2005년 4월 1일 채택)